



전문의 법안 4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 이수구 협회장 “돌발 변수 차단 4월내 종결 최선”

2월 1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치과전문의 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전문의 관련 의료법개정안을 의결예정이었으나, 2014년부터 법안이 적용되는 만큼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 오는 4월 임시 국회 때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키로 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월 18일 심의 의결한 전문의 관련 의료법개정안은 최영희 민주당 의원과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 안을 토대로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전문의 전문과목만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응급환자 제외).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앞으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치과 의사 전문 과목 표시 제한이 풀리는 오는 2014년부터 적용된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쟁점법안이 아닌 이상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안의 국회통과가 70% 이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위 전체회의의 경우 위원회를 대표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용어로 적당하지 않은 법안지구수정과 법 체계만 심의하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통과 의례이기 때문이다.

치협은 앞으로도 4월 임시 국회에서 '전문의관련 의료법개정안 대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빠른 의결을 촉구하는 한편 예상될 수 있는 돌발 변수 차단에도 주력, 4월안에 치과계 최대 현안인 전문의 문제를 종결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수구 협회장은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 사력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송치의학상 수상자 최종 결정 김수관·김은철 교수 대상, 김성훈·최학철 교수 금상

연송치의학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해 재심사한 결과 대상 수상자에 김수관 조선대 치전원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교수와 김은철 원광치대 구강악안면병리학교실 교수가 최종 결정됐다.

또 금상에는 김성훈 경희대 치전원 치과교정학교실 교수가 최한철 조선대 치전원 치과생체재료학교실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여갑)는 3월 11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열어 SCI 등재 국제학술지 발표업적(편수)의 정량적 계산 오류로 인해 연송치의학상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통해 선정한 수상자들을 최종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시상키로 했다.

특히 이번 수상자 선정에서는 추천된 후보자들의 연구업적들이 뛰어나 고심 끝에 임상분야와 기초분야에 걸쳐 각각 대상, 금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치의학회는 또 학회 인준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의견서를 참고해 신중히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보고사항으로 임플랜트, 진정법 가이드라인 제작에 관한 건을 비롯해 3개 임플랜트 학술단체 통합추진에 관한 건, 치협 종합 학술대회 준비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AGD 신청 23일 현재 6000명

3월 1일부터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수련제도 경과조치 지원자 접수가 시작된 이래 22일만에 5000명을 넘어서 23일 오후 7시 현재 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치협 AGD수련위원회(위원장 국윤아·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까지 신청자가 5150명에 이르렀으며, 다음날인 23일 오후 7시 현재 6000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 일주일만인 지난 6일 신청자가 1000명을 돌파한 이래 12일까지 2000명을 넘어섰으며, 이어 16일에는 3000명, 18일 4000명을 넘어

22일 5000명이 넘는 회원이 접수하면서 신청 열기를 이어갔다.

위원회는 접수마감일인 31일이 임박함에 따라 AGD 자격취득과 관련해 지원서 접수기간을 몰라 지원시기를 놓치는 회원이 없도록 남은 접수기간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서울·경기권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별로 진행될 필수교육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개원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치협 종합학술대회 “한 달 앞으로” “학술 축제 즐기자”

사전등록 20일까지...온라인 등록도 가능

치과계 최대 축제의 장인 '제47회 치협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 전시회' 개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4월 16일(금)부터 18일(일)까지 서울간 삼성동 코엑스 신관 및 Hall C(구. 대서양홀)에서 최신지견의 학술강연을 비롯해 기자재 전시회, 각종 문화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대회 준비위원회(공동 준비위원장 김여갑·우종윤)는 남은 기간 회원들이 불편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회 사전 등록 기간은 3월 20일까지며, 회원들의 등록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http://kda-dental.or.kr>)에서도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다.

준비위는 아울러 학술프로그램의 강의별 요점 등을 담은 홍보영상 자료물도 홈페이지에 게재해 회원들이 사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이번 대회에 등록, 학술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원에게는 보수교육점수 4점이 인정되며, 아울러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경과조치 필수교육시간도 8시간이 별도로 인정될 예정이어서 AGD 제도에 관심 많은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확한 교육 참여 체크를 위한 회원 ID카드 및 RF카드제를 도입, 운영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의 경우 10개의 강연장에서 국내외 유명연자들이 대거 참여해 치과계 관심분야 및 기초치의학, 교양 등 다양한 주제로 특강 및 심포지엄 등이 마련돼 많은 관심을 끌 전망이다.

기자재전시회 역시 치과용 장비를 비롯해 재료, 치과용 의약품, 구강위생용품, 의료정보시스템 등 국내외 업체들의 최대 규모의 최신기자재 전시를 통해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국 11개 치과대학 동창회 부스도 마련해 선후배 및 동기생들간의 만남의 가교역할을 할 예정이며, 봉사단체, 대한구강보건협회 등 유관단체들의 부스도 마련하는 한편 치과위생사 유희인력 구인·구직 센터도 운영한다.

이번 대회 개최식 및 전야제 행사는 4월 16일 오후 6시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며, 인기 가수 인순이 씨의 축하공연을 비롯, 오프닝퍼포먼스로 퓨전그룹 '두드락'의 공연과 여성 퓨전국악 8인조 그룹인 '국악소녀시대'의 공연도 예정돼 있다. 폐회식은 18일 오후 6시 그랜드볼룸에서 펼쳐지며, 기아자동차의 협찬으로 고급자동차 'K7(2700cc)', 유니트케어(신흥 협찬) 등 다양한 기자재 경품이 추첨을 통해 제공된다.



“KDA Office 사용 활성화해 주세요”

지부 회무 프로그램 활성화 검토 회의

치협은 지난 3월 5일 서울역사에서 '지부 회무 프로그램 KDA Office 사용 활성화 검토회의'를 열고 치협에서 개발한 KDA Office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채 정보통신이사과 한문성 재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지부의 관련업무 임원과 실무자를 초청해 KDA Office를 이용하는데 따른 지부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5월까지 해당 지부에서 회비납부 현황을 KDA Office에 입력하기로 합의했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박영채)에서 각 지부의 KDA Office에 대한 기능별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회원 정보 조회 기능은 대다수의 지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회원 신상이나 회비 정보 등록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지부가 여전히 서면장부와 엑셀을 사용 중이어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문성 재무이사는 “치협에서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부 회비

납부를 강화하기 위해 ID 카드를 발급하고 RF카드 출결시스템을 도입해 보수교육에 대한 출결 상황을 정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보수교육 비용에 대해서도 차별을 두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KDA Office에 회비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록하지 않으면 커다란 혼선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채 정보통신이사는 “KDA Office는 지부의 요청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지부의 참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좀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회비납부 여부, 회원신상, 보수교육 자격조회 등을 수월하게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각 지부의 사무국의 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본인의 보수교육 이수, 회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부의 정확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